내가 쉽게 엄청 변한다

(마태복음 13:31~33)

31.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32.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33.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내가 쉽게 엄청 변한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내가 쉽게 엄청 변한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주제로 하는 비유의 말씀을 계속 해나가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겨자씨 비유나 누룩의 비유도 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어때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천국에 대한 바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이 비유도 오해 없이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천국을 크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천국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마음에서 천국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외치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 또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외침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오늘 본문의 비유를 포함하여 많은 말씀이 천국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으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시다가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아닌 이 세상 안에서 다른 무엇인가를 추구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천국을 알려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천국으로 이끄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단순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단지 그리움의 대상을 바꾸려 하신 것 외에는 하신 일이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움이란 마음에서 어떤 이름이나 대상이나 상황을 붙잡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진 그리움의 대상을 바꾸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리워하는 대상은 건강이나 자녀의 형

통이나 재정적 여유 등입니다. 이러한 마음상태에서는 천국과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사역은 무효화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고 천국을 이야기 하셨으며 천국으로 갈 길을 만드셨으며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셨던 천국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움은 마음에서 갈망하는 일이 실제로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 생겨납니다. 마음은 몸을 떠나 갈망하는 대상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몸이 있는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향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유일한 일이 그리움의 대상을 세상에서 천국으로 바꾸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천국과 연관시켜보자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천국을 그리움의 대상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을 그리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믿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천국이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의 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세상에 대한 그리움을 끊을 때에 천국을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 비유의 말씀을 따르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천국을 그리워하는 것이 가장 작은 일이라고 하십니다. 작은 일이란 가치 없는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천국을 그리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세상 그리움에 대해 마음이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식이나 돈이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으로 말하면 커다란 예배당이나 성경공부나 신학적 지식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숨만 쉴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천국 그리워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그리움을 끊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천국을 그리워하기 위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한 조건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가장 작은 투자이고 가장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우리의 삶에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변화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31~32절에서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그리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일반적으로 퍼져있는 고정관념을 수정해보기로 하겠습니다. 32절을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

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다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임을 강조하시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겨자씨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볼 수 있는 종자 중에서는 가장 작은 부류에 속하기에 비유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저도 이 겨자씨를 실제로 본적이 있는데 마치 깨나 쌀을 망치로 으깬 부스러기 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된다고 하셨지만 겨자는 배추과에 속하는 한해살이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로 쭉 뻗어 자라는 나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3m 정도까지 자라기는 한다지만 오히려 덤불처럼 우거져 새들이 둥지를 트는 모습을 상상하는 편이 적당할 것입니다.
다만 오늘 비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은 작은 겨자씨가 무성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많은 일을 하고 노력을 기울입니다. 건강을 위해 숱한 노력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취직이나 합격 등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다못해 반찬을 만들기 위해 시장을 보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노력이 소모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중에 가장 작은 일이 천국을 그리워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로인해 나타나는 변화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33절을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루 서 말은 약 22리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뒤 광야에서 만나를 주울 때에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을 양이 약 2.2리터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가루 서 말이면 열 명의 식구가 하루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마디만큼의 누룩을 집어넣으면 이 많은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즉 밀가루 반죽이 아무리 크더라도 작은 누룩의 영향을 받아 전체가 부풀어 오르듯이 천국을 그리워하는 작은 일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오셨고 천국을 이야기하셨으며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천국에 대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천국이 아닌 세상에 대해서만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에서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해 반응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한 반응과 그리움을 끊어야만 합니다.
이 일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는 바람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좀 더 내용을 보태자면 "돈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돈

에 대한 그리움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 마음이 주님을 따라 천국으로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그리워하기의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서울에 있는데 애인이 부산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몸은 서울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애인이 있는 부산을 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몸은 현재를 살아가지만 꿈이 10년 뒤에는 10억을 벌겠다는 것이라면 마음은 10년 뒤를 향하게 됩니다. 애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고 돈을 벌기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천국을 그리워하는 것에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천국을 그리워할 수 있다면 삶에는 어떤 일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겨자씨 비유에서 천국 그리움으로 인한 변화는 지구를 던지는 투포환 선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투포환 선수들이 무거운 쇠로 된 공을 던질 때에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가까이 온 천국을 그리워할 수 있다면 고작 공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던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구를 던진다는 것은 인간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매여 사는 이유는 그리움 때문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일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매여 살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곧 세상에 대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가신 천국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인데 어떤 사상가나 종교가나 재벌이나 박사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구를 졸업하는 것입니다.
천자문을 다 외워서 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천자문을 뗐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자유로워 질 때에 졸업이라는 의미에서 지구를 떼게 됩니다. 지구에서 살지만 온전히 지구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고 어디를 가든지 천국의 평강을 샘솟게 하는 옹달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의 공통된 그리움의 대상은 승진이나 급여의 상승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과를 올려야만 되기에 많은 신경을 쓰고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에 비하자면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기는 겨자씨나 누룩처럼 작은 일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승진이나 급여에 대해서 마음이 죽었음을 고백할 때에 몸은 직장에 있지만 마음은 천국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직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기는 어느 곳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직장에 대해서 죽고 천국을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움의 대상을 바꾸는 일은 겨자씨만큼 작은 일입니다. 마음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보다도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국을 그리워했을 뿐인데 삶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직장에 매이지 않기에 일에 부담을 갖지 않게 되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사라집니다. 마냥 무섭기만 했던 사장님도 더는 무서운 대상이 아닙니다. 조그만 실수를 해도 행여 잘릴까봐 두려웠는데 그러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직장뿐만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지향하고 그리워하는 대상에 대해서 죽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와 평강의 옹달샘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지구 안에 있는 것들을 그리워하는 동안에는 지구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를 투포환 선수처럼 던지는 사람이 되는 자유와 평강을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대해 자유로워질 때에 내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세상에 대한 그리움이 죽었으니 의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삶에서는 누룩이 반죽을 부풀리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큰 예배당도 아니고 막중한 예산도 아니고 성경공부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늘을 그리워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그런데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에 영향을 미치듯이 이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나의 삶에 가장 작은 부분에까지도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권과 주권이 개입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존재하던 곳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이는 곧 질서가 생겨났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명령권을 발동하실 때에 어두운 곳에는 빛이 생기고 열매가 없는 곳에는 열매가 맺히고 혼돈이 있는 곳에는 질서가 생겨나게 됩니다. 누룩이 밀가루 반죽의 모든 부분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천국을 그리워하는 것뿐입니다.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가장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그리워했을 뿐인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명령하셨던 것처럼 삶 전체에 하나님의 명령권이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란 오직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는 것뿐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급한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기 위해 대화는 중단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급한 전화는 무엇입니까? 가까이 온 천국보다 더 급한 전화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몸보다도 가까운 곳에 천국이 와 있습니다. 물론 멀리 있던 천국이 갑자기 오게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항상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원죄로 인해 천국을 지나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가까이 온 천국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온 천국보다 우선해야 할 대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제까지 이러한 신앙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돈 문제가 급하면 그 문제를 그리움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돈 문제가 아무리 급하게 느껴질지라도 마음에서의 거리를 기준으로 보자면 천국보다 급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있기에 돈 문제도 있는데 천국은 마음으로부터 몸보다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나 건강 문제 등에 대해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 그 그리움을 끊어야만 천국에 대해 반응할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대상과 대화를 하다가도 천국에서 전화가 오면 대화를 끊고 전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그리움을 끊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상에 대해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대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 하더라도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그리워하는 중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움 자체를 끊어버리고 그리움의 대상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중에 가장 간단한 일입니다. 스타 목사님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엄청나게 큰 예배당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깊은 성경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죽었음을 인정할 때에 천국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천국 그리워하기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 일은 겨자씨 같고 누룩 같이 작은 일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것에 대해 죽고 천국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그리워할 때에 어디에 있든지 온전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없어도 하나도 아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재벌이라고 해서 돈에 굶주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재벌이기에 더 큰 돈에 굶주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자문을 떼듯이 돈을 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을 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의 의미를 마스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가치들이 전혀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천국 그리움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일은 공자도 석가모니도 소크라테스도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천국을 그리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그리움을 끊어내면 주님이 가신 천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천국으로 가고 싶어 하고, 주님이 만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천국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것입니

다. 애인이 출장만 가도 그리움이 사무칠 텐데 하물며 천국을 그리워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일은 겨자씨나 누룩처럼 작고 쉬운 일이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도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세상 그리움이 끊어지게 해주셔서 천국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그리워하게 하여 주시고 삶에 나타나는 엄청난 변화를 바라보며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